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사회책임투자

노대명('07. 11. 26)

Ⅰ. 문제제기

□ 한국의 사회적 기업이 위로부터의 지원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 의존적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성과 강한 자율성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먼저 외부의 환경을 진단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우리사회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수십년간 빠른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사적안전망이 약화되고 공적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 이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제도적,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역할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②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민간영리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사회적 기업에 비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경제의 조직들로 하여금 정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약화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사회적경제가 성장기반을 구축하기에 앞서 시장경쟁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민영화(민간위탁)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과정에서 바우처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들이 영리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자본의 영세성과 취약계층 중심 인력구성, 그리고 초기 투자비용 조달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가적인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개선에서 뒤쳐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어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내부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시민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정체성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조직들을 이끌 지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공적지원에 의존하여 단기간에 걸쳐 큰 성장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외연이 확대됨에 따라 정체성이 약화되고, 사업방향에 대한 내부적 합의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현재 사회적 기업은 발전전망과 향후 전략을 구축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 ② 사회적 기업의 지역 간·업종 간 협력체계가 발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력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구심점이 없어 그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들이 파편화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 인지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 ③ 다양한 사업조직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문인력, 즉 사회적 기업가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최근 외국에서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실직빈곤층만으로 경쟁력 있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자활공동체의 실험은 이러한 시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이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Ⅱ.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

□ 위에 지적했던 다양한 위험 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양한 문제점 중 어떠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적 기업이 해결해야 할 일차적 과제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후에 제기되는 많은 해결방안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협의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민간재원을 조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재원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 셋째, 사회적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실직빈곤층이 공급자이고 빈곤층이 소비자라고 해서 낮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해도 좋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적어도 평균적인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 넷째,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 참여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의 평균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의 일자리가 최저임금을 조금 벗어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전제로 임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적어도 사업초기에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서비스 위탁운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보다 위탁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참여자의 고용보장, 임금의 현실화, 성과와 능력에 따른 급여의 차별화, 사회보험 가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여섯째, 사회적 기업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실직빈곤층이 사회적 기업가로 변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이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상당기간 시민단체의 실무자가 사회적 기업가로 변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가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일곱째, 사회적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고용 외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다양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책상에서의 기획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기획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한계와 잠재력이 확인된 현장에서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서비스와 환경부문, 그리고 농업부문을 사회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 단계에서 사회적 기업 설립을 위해 정부의 재원투입을 확대하는 것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은 그것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의 주체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주체의 형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너무 서두르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Ⅲ. 사회적 기업과 투자기금의 다원화

□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총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투자기금의 다원화를 필요로 한다.

□ 먼저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재단, 마이크로-크레딧을 설립해야 한다.

-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라는 점은 필요하지만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재단이나 마이크로-크레딧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 민간기업은 사회적 기업에 직접 투자/기부하는 방식보다 마이크로-크레딧이나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재단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기부하는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민간의 사회공헌기금을 목적에 따라 다원화할 수 있는 매개적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원의 전문성,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 의존성 최소화, 기타 지원조직 육성을 위한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그러하다.

  ※ 민간기부금은 사업조직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지만, 정작 사업을 내실화하는 지원조직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 설립에 필수적인 지원조직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제3섹터 스스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재원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 기업을 지역 기반형으로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재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이러한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부문의 다양한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다. 끝으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대안적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 존재하는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조합 등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 참고로 현 단계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의 기금을 신용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재원규모를 키워야 한다.